

금식 - 사랑의 실천



더블류 유진 헨슨 장로
아시아 지역 회장단 제1보좌

아시아 지역 회장인 멀린 알리버트 장로님은 1991년 7월 29일에 중국 북경을 다녀오셨습니다. 이 여행의 목적은 중국 정부에 홍콩 화폐로 20만달러를 전해 주어 최근 중국의 광대한 지역을 황폐시킨 홍수로 인하여 생긴 수재민을 돕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중국 정부는 깊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기부금을 받았습니다. 그 돈으로 많은 고통과 고난을 덜어 주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으리라고 확신합니다.

이 실속있는 선물이 아시아 지역 성도들이 바친 금식 헌금으로만 모아졌다는 것은 주목할 만한 일입니다. 이 기금은 아시아 지역 전체에 걸친 여러 와드와 지부로부터 보내 온 것입니다. 금식을 하고 금식

헌금을 낸 성도들이 그 액수에 관계 없이 이러한 자선 행위를 가능케 하는 데 한 몫을 했다는 것을 아시게 된다면 만족감을 느낄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복음의 율법과 원리를 지킬 경우 각 사람이 어떻게 유익을 얻게 되며 또한 위와 같은 기독교적인 사랑의 행위가 어떻게 가능하게 되는지를 봅니다. 우리는 각자 일상 생활의 일부로 삼아야 할 원리를 실행해야 할 책임과 또한 기회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회원으로서 매달 금식의 법을 지킬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있습니다. 금식의 법을 지키므로써 우리는 자신을 훈련시키는 능력과, 풍부한 영성과, 자제력을 키울 수 있는

능력을 기르게 됩니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금식의 법을 지키게 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1. 두 끼니 동안 먹을 것과 마실 것을 금한다.
2. 금식 간증회에 참석한다.
3. 궁핍한 사람들을 보살피도록 감독이나 지부장에게 후한 헌금을 낸다.

가난한 사람에게는 금식으로 절약된 두 끼니 분의 식대가 충분한 헌금이 되지만 수입이 있는 사람은 두 끼니 식대의 여러 배를 기꺼이 바칠 수 있어야 합니다. 금식 헌금을 후하게 바치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좋은 기준은 그 안에 희생의 요소가 담겨 있는가? 를 알아보는

것입니다.

교회 지도자들은 회원들에게 금식을 하도록 오랫동안 권고해 왔습니다.

해롤드 비 리 대관장님은 1971년에 금식에 관해 히버 제이 그랜트 대관장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교회의 모든 회원들이 금식을 하고 금식 헌금을 바치도록 권고받고, 후하게 바침으로써 오는 축복을 경험할 때, 우리의 헌금이 가난한 자들의 필요 사항을 보다 충분히 충족시키기 시작할 것입니다.

회원들이 금식을 하고 기도하고 헌금을 바침으로써 그들의 금식을 성결케 한다면 돈의 액수에 대하여는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십이사도 정원회의 하워드 더블류 헌터 회장님은 1985년에 다음과 같이 현명한 권고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금식을 통해 자신을 훈련시킴으로써 하나님과 하나로 조화를 이룰 수 있게 되며, 또한 금식일에는 세상 일을 제쳐 두고 영적으로 더 높이 고양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금식을 하면서 불행한 사람들의 필요 사항을 알게 되고 보다 잘 이해하게 됩니다.

고든 비 힝클리 부대관장님은 최근에 행하신 말씀에서 다음과 같이 권고하셨습니다.

“불행한 사람들의 필요 사항을 충족시키고도 남을 만큼 후한 금식 헌금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모든 회원들이 금식을 하고 금식 헌금을 후하게 바친다면 가난하고 궁핍한 회원들 뿐만 아니라 그 밖의 많은 사람들까지도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주는 사람은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축복을 받게 될 것이며,

굶주린 사람은 식량을, 헐벗은 자는 입힘을 받게 될 것입니다. (고든 비 힝클리, 1990년)

금식은 우리 각자가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일은 각자가 마음과 정성을 기울임으로써 이룩될 수 있는 과제입니다. 금식의 법을 합당하게 지킨다면 많은 유익한 일들이 흘러 넘칠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강해질 것이며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높은 수양을 쌓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금식을 한 분량에 해당되는 가격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굶주린 사람과 집 없는 사람, 그리고 의료 혜택을 충분히 받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을 돕는 일에 대해 이야기할 때, 우리는 단지 “말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행하는 사람”이 됩니다.

우리는 종종 사랑이 필요한 사람에게 민감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 자신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간증합니다. 예언자들은 오랜 세월 동안 사랑에 관하여 권고하였습니다.

모로나이서 7장 44절에는 “...마땅히 사랑을 가져야 하리니 사랑이 없으면 사람이 헛됨이라...”라고 기록되어 있으며,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쟁과리가 되고”라고 쓰여 있습니다.

우리 모두 가난한 사람과 불행한 사람에 대하여 생각하면서 사랑을 베풀어야 할 필요성을 마음속으로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금식의 법을 실천하도록 헌신하기 위하여 우리 자신을 다시 헌납하기 바랍니다. 이렇게 할 때 큰 축복이 하늘에서 쏟아질 것입니다. *

가사 모임을 통한 전도

일본 다카마쓰 지역에 계시는 후미야 모리무라 자매가 아시아 회장단에 보내온 이 기사를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어서 기쁩니다.

다카마쓰 스테이크 상호부조회 회장단은 “가사 모임을 통한 전도”를 올해의 주제로 삼았습니다.

우리는 “가정 가사 모임”을 통해 자매들에게 전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로 하였습니다. 가사 모임은 우리 모두에게 재미있고도 훌륭한 모임이므로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오는 축복들을 이웃에 있는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싶었습니다. 비회원들은 가사 모임에 참석하기 위하여 교회에 참석하는 것을 어색해 하거나 다소 거부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이웃집으로 간다면 사양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먼저 저의 집에서 “가정 가사 모임”을 가지려고 했으며, 상호부조회 모임에서 그것을 보고하였습니다.

가정 가사 모임 : 1991년 5월 21일

참석 : 이웃에 사는 주부 다섯 명

장소 : 모리무라 자매의 집

이웃들을 위한 설명 :

1. 이 모임은 교회의 가사 모임의 하나입니다.
2. 가사 모임은 바느질, 요리, 육아와 같은 기술을 익히고 향상시키며 우리 자신을 영적으로 높이 들어올림으로써 우리 가정에 사랑과 화평과 많은 유익을 가져다 주는 재미있고도 훌륭한 모임입니다. 이 모임은 사랑하는 이웃들과 함께 축복을 나누기 위한 것입니다.
3. 정기적으로 이 모임을 갖고자 합니다.

참석한 사람들의 의견

“저는 왜 이 근방에는 가사 모임과 같은 모임이 없는지 이상히 여겨 왔습니다. 우리가 사는 지역에는 크고 훌륭한 집회소가 있으므로 이러한 모임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임을 갖는다는 것은 멋진 일입니다.”

“저는 모리무라씨가 이런 모임을 인도해 주셔서 기쁩니다. 이러한 모임을 출선해서 이끌어갈 사람이 있다면 여러 가지를 배울 수 있고 또한 즐거운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내용 :

1. 요거트 만드는 법을 배우고 맛을 봄. 매우 맛있었다.
2. 다음에 배우기 원하는 수공예 종류에 대하여 의논함.
3. 다음 시간부터 뜨개질을 시작하기로 결정함.

찬송가 : 174장 · “나의 집에 사랑이 차고 넘치면”

기도 : 모리무라 자매

모임 및 진행 방법

1. 가정 가사 모임은 교회에서 갖는 일 모임과 분리해서 따로 갖는다.
2. 교회에서 갖는 가사 모임에 참석한 자매들은 그들의 가정 사정에 맞추어서 정기적으로 그들의 집에서 “가정 가사 모임”을 개최할 수 있다.
3. 거리상의 이유나 혹은 다른 이유로 교회에서 갖는 가사 모임에 참석할 수 없는 활동 회원들은 자신의 집에서 가정 가사 모임을 개최할 수 있다.
4. 가능한 한 찬송과 기도를 한다.
5. 가능하다면 순서에 경전이나 교회 잡지 또는 교회의 말씀로부터 영적이고도 고무적인 이야기를 발췌하여 발표하는 시간을 포함시킨다.
6. 이 모임을 개최하는 자매들은 이 모임 역시 주님이 주관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7. 이 모임을 개최한 자매들은 모임의 결과를 상호부조회 회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간증 :

처음 저의 집에서 가정 가사 모임을 개최하고자 했을 때, 이웃 사람들이 기독교나 기도에 대하여 별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기도를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망설였습니다. 그 사람들이 전에 기도해 본 적이 있는지 또는 다른 사람이 하는 기도를 들어본 적이라도 있는지 몰랐습니다. 아마도 기도를 듣는 것을 불편해 하거나 거북해

할지도 모를 일이었습니다. 저는 가정 가사 모임에 기도를 넣어야 할지 주님에게 여쭙어 보기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기도를 하는 중에 영의 작은 속삭임이 저에게 모임을 진행하는 동안 영이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들과 함께 기도하라고 시켰습니다. 저는 사랑하는 이웃들에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함께 나누어야 한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모임이 시작되자마자 그들은 남편과 이혼한 이웃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찬송과 기도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더욱 더 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잠담으로 일시적인 재미를 느끼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앞으로써만이 진정한 화평과 행복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그들과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려고 노력하였습니다. 모임이 끝날 때 저는 그들에게 이 모임은 교회 모임 중의 하나이며 이 모임을 위하여 찬송가를 부르고 기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들은 쾌히 승낙했습니다. 우리는 찬송가 174장 “나의 집에 사랑이 차고 넘치면”을 부르고 제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였습니다. 그들은 행복한 것 같았습니다.

상호부조회 회장단으로서 우리는 “가사 모임을 통한 전도”인 올해의 주제를 통하여 가사 모임에 참석하는 사람들이 많이 증가할 것을 바라며 또한 우리 모두가 함께 일한다면 우리가 변화될 수 있음을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다음 달에 계속

서울 지역 특별 노변의 밤



인산인해를 이룬 청중들

지난 9월 14일 동대문 스테이크 용두 와드에서 하워드 더블류 헌터 십이사도 정원회 회장님을 모신 가운데 서울 지역 특별 노변의 밤이 개최되었다. 일본에서 지역 대회를 마치고 일정에 없는 한국 방문을 특별히 자청하셔서 모임이 성사되었다. 건강이 극히 좋지 못해 보조 기구에 몸을 의지한 채 부축을 받으며 헌터 자매님과 함께 입장할 때, 그분을 존경하고 신뢰하고 지지하며 사랑하는 수많은 청중들이 염려와 안타까운 심정으로 모두 일어나 한때 장내가 숙연해졌다.

헌터 회장님의 한국 방문을 환영하시면서 이날 사회를 맡으신 고원용 장로님께서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에 따라 선하게 사는 백성이 있기 때문에 이 백성들을 위로하고 칭찬하고 격려하고자 주님께서 이곳에 보내주신

것이다.”고 말씀하시면서 단지 일정한 문제가 아니라 주님께서 이 땅을 사랑하시고, 그분의 종들이 건강이 극도로 좋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이 땅의 성도들을 기억하고 사랑해 주심을 상기시켜 주었다.

말씀을 통해 헌터 자매님께서 “모든 성도들에게서 아주 감미로운 영을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는 특별히 성신의 은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만이 가지고 있는 것이며, 또 다른 말일성도를 만날 때 바로 이런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모든 장벽들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서 주님의 힘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일에 주님의 복음대로 살 수 있는 큰 축복 가운데 있습니다. 교회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라고 당부하셨다.

“정말 감격적인 청중입니다!” 모임 시작 전부터 이미 만석이 되어서 사이사이 겨우 서서 모임에 참여한 사람들과 달리 방법이 없어서 아예 창문을 모두 떼어내고 밖에서 의자를 놓고 올라선 회원들로 인산인해를 이룬 성도들의 지순한

사랑과 지지와 신뢰, 그리고 존경과 응집된 신앙의 표출을 보시면서 헌터 회장님께서 하신 첫마디다.

“이제 바라는게 하나 있는데 그것은 한국어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고 하시면서 “우리는 한국 백성들에 대한 큰 사랑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관장님과 십이사도 정원회가 함께 모이는 모임에서 한국 백성들에 대한 사랑에 대해서 자주 이야기합니다.

“저는 오늘 많은 젊은이들을 보며 감격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종교란 늙은이들을 위한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여기에 있는 많은 젊은이들을 보면서 저는 교회의 무한한 힘을 느낍니다. 저는 침례 받은 지 얼마 안되는 한 젊은이에게 어떻게 교회에 나오게 되었느냐는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질문에 젊은이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친구가 보여 준 모범 때문입니다.’

“젊은이들이 보인 어떤 감격적인 모범으로 인해 많은 젊은이들이 지속적으로 교회에 들어오게 됩니다. 이러한 젊은이들의 훌륭한 표준과 그들이 복음대로 살며 행한 선교



말씀하시는 헌터 자매님



상: 성전장님 내외와 성전 경내를 둘러 보시는 헌터 회장님과 헌터 자매님

하: 불편한 몸으로 보조기구에 의지한 채 입장하시는 헌터 회장님과 헌터 자매님

사업에 감사합니다.

“우리 각자는 다른 사람들이 따를 수 없는 모범을 보이며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 주님이 기뻐하실 것입니다.

“교회는 세계적으로 크게 발전하고 있는데, 모든 성취의 결과는 젊은이들에 의해서 기인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꼭 모범이 되어야 합니다. 인생을 사는

동안에 많은 사람들에게 커다란 영향력을 주시길 바랍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헌터 회장님은 특별히 벤슨 대관장님의 건강에 대해 염려하시면서 “그분은 이제 아흔 두살의 고령으로 말씀을 하시기가 어렵지만 늘 온화하고 훌륭한 웃음을 주십니다. 우리는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온 마음으로 지지하고 사랑합니다. 그분은 세계의 모든

성도들에게 큰 사랑을 갖고 계십니다.

“그분에게 한국 방문에 대해 보고드릴 때 한국 성도들과 함께 아주 기쁜 시간을 보냈다고 보고할 것입니다.”라고 하시면서 벤슨 대관장님을 위해 기도해 줄 것을 당부하셨습니다. 또한 “여러분의 성취와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이 모든 사실을 알고 계십니다.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급속한 변화로 인하여 더 많은 사람과 함께 할 수 있으며, 이것은 무엇보다 감사할 일입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복음을 나눈다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어디 있었습니까. 복음은 참됩니다.”라고 말씀하신 뒤 다음의 축복으로 말씀을 맺으셨다. “한국 성도들에게 축복을 드립니다. 개개인의 생활에, 가정 생활에, 남편과 아내에게, 자녀에게, 그리고 여러분의 삶이 행복하시길, 주님을 섬기고 계명대로 살아 가시길 겸손히 축복드립니다.” *

〈‘성도의 빛’ 편집부〉

몰몬경 100만부 판매



100만권째 몰몬경 복음 선교사에 의해서 전달되다

우리말 몰몬경이 금년 10월 현재 100만부가 판매되었다. 1967년 2월 초판 3,000부를 발행한 이래 판매 부수가 매년 증가했으며, 특히 1987년부터 1991년 4월까지 85만부를 판매하여 몰몬경 독자 수가 최근 들어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몰몬경은 현재 34개 언어로 출판되고 있으며 지난 1990년 한해 동안 217,971부를 판매한 한국을 비롯해 전세계적으로 6,014,521부가 판매되었다.

‘성도의 빛’ 편집부에서는 이를 계기로 몰몬경을 통해 개종한 이야기 및 몰몬경을 통해서 얻은 간증을 게재한다.

• 1991년 12월호부터 게재될 기사는 그동안 공모에 응한 작품 중에서 선정한 것이다. 계속해서 몰몬경을 통해서 개종한 이야기나 몰몬경을 통해서 얻게 된 간증을 보내 주기 바라며, 우수한 작품은 ‘성도의 빛’에 실거나 교회 본부의 신무사나 잡지사에 보낼 것임.

지난 3월 우리말 몰몬경 출판이 100만부를 달성한 이래 ‘성도의 빛’ 편집부에서는 100만권째 몰몬경의 행방을 추적한 결과, 대전 선교부의 안상현 장로에 의해서 구도자에게 전달되었음을 확인했다.

복음 선교사들에 의해서 수많은 영혼이 그리스도에게로 인도되어 삶의 변화를 꾀하고 있다. 구도자들에게 삶의 변화를 갖게 하는 것은 역시 몰몬경이다. 안상현 장로 역시 몰몬경으로 인해 많은 생활의 변화를 경험하였고 인생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도 가졌다.

그는 1965년 서울에서 출생했으며 국민학교 때인 1977년 2월에 침례를 받고 줄곧 교회 안에서 성장했다. 어려서부터 교회에서 성장한 탓인지 성격이 늘 쾌활하고 낙천적이며 유우머 감각이 좋다는 평을 듣는다. 그는 20개월을 봉사한 다양하고 훌륭한 경험을 가진 선교사로서 선교 사업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저들이 비록 강박할지라도 우리는 열심으로 일하자. 또한 우리에게만은 우리가



길 전도에서 만난 학생들에게 몰몬경을 소개하고 있는 안상현 장로와 동반자 최용훈 장로

육체를 지니고 사는 동안 다해야 할 임무가 있으니, 이를 다하여 온갖 의의 원수가 되는 것들을 이기고 우리의 영육이 하나님 왕국에서 안식을 얻도록 하자.”는 모로나이서 9장 6절로 대신했으며, “구도자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해할 때” 가장 기쁘다고 덧붙였다.

그는 모든 일에서 적극적이며 “주어진 것이면 최선을 다하자”는 사고 방식으로 생활한다. 복음의 원리나 계율, 또는 선교사로서 규칙을 기쁜 마음으로 충실히 행한다는 말을 들으면서 100만권째 몰몬경이 이 장로의 손으로 전해진 사실이 결코 우연이 아님을 느끼게 되었다.

“일상의 모든 면에서 중요한 지침을 준다”고 자신의 몰몬경에 대한 간증을 하는 안 장로를 보면서



늘 기쁜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안 장로와 그의 동반자

그의 동반자인 최용훈 장로는 “그는 어느 누구와도 복음을 나누는 자신감이 넘치는 선교사이다.”라고 평한다.

몰몬경 100만권째를 자신이 전했다는 사실에 대해 크게 놀랐지만 이제 몰몬경으로 더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에게로 인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선교사업에 임할 것임을 안 장로는 다짐했다. *

몰몬경을 통한 변화

안상현 장로(대전 선교부)

말일성도로서 우리는 성경과 더불어 또하나의 경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책은 성경과 마찬가지로 예언자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언자 요셉 스미스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몰몬경은……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이 세상에는 몰몬경을 필요로 하는

사람-몰몬경을 통해서 삶에 변화를 맞을-이 너무나 많습니다. 저는 실제로 그러한 변화의 과정을 많이 보아왔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 때, 복음 선교사로서 우리의 임무가 막중하다는 것을 새삼 느껴봅니다.

저는 오늘 몰몬경을 통해 큰 기쁨을 맛본 어느 가정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육종욱 형제님, 처음 그분과의 만남은 가가호호를 통해서였습니다. 어색해 하는 그분의 모습에서 동반자와 저는 그분의 자녀에게로 관심을 돌렸고 영원한 가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곧이어 몰몬경을 소개하고 이 책을 통해 가족이 영원할 수 있다는 짧은 메세지와 간증을 전하고 다음을 약속했습니다. 직장 일로 매우 바빴기 때문에 좀처럼 만날 수 없었지만 계속 전화 연락을 통해 안부를 확인하고 우정 증진을 하는 가운데 결국은 그분의 자녀들을 먼저 가르쳐도 좋다는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분은 이미 오래 전부터 천주교 신자였습니다. 종교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동반자와 저는 우리가 임의로 몰몬경에 표시한 부분을 읽도록 권유했습니다. 얼마후 그분은 자녀들과 함께 성찬식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자연스럽게 복음 토론이 시작되었으며 우리는 매일 아침 그분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오래지나지 않아 그분은 침례를 받았습니다. 침례를 받기까지 그분은 많은 세상적인 문제들을 극복해야 했습니다. 인내와 고통의 시간이었습니니다. 그러나 그분은 진리에 대한 강한 열의와 함께 영의 느낌을 따르도록 굳게 결심했습니다.

더욱 그분이 진리에 대한 강한 확신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침례 후 매일 자녀들과 함께 30분간의 몰몬경을 읽는 시간이었습니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진리를 찾겠다는 강한 열의로 그분은 자발적으로 주님의 방법을 택했던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날 금식 간증 모임에서 그분은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저는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가 참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몰몬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간증드립니다.”

무엇이라 표현할 수 없는 이 짧은 한마디에서, 저는 말할 수 없는 큰 기쁨을 느꼈습니다. 저의 두 눈에는 눈물이 고였으며, 이것이 복음의 진수라는 것을 온몸에 흐르는 전율을 통해 알았습니다.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특히 몰몬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고 기도할 때, 그것이 참되다는 것을 느낄 때, 그것은 변화-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과 그분이 우리 모두를 위해 희생한 참뜻을 이는-를 의미합니다.

그러한 변화를 통해서 주님께서 주신 복음의 원리에 따라 이 생을 준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육 형제님 가족을 통해 저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복음을 통해서 사소한 가장으로 변화하는 아버지의 모습과 지금은 주일학교 회장으로서 열심히 봉사하는 육 형제님을 보면서 저는 사람들의 변화에 동기를 부여하는 이 사업이 참되다는 것을 간증드립니다. 몰몬경에는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변화의 원리가 실려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증드립니다. 아멘 *

세계 정상의 말일성도 음악인 최현수 형제



꿈의 콩쿠르로 불리는
차이코프스키 경연대회.

1958년에 제1회가 피아노와 바이올린 두 부문으로 치러졌고 제2회 때 첼로, 제3회 때 성악을 추가해 지금까지 3부문으로 나뉘어 실시되고 있는, 최고의 국제적 권위를 가진 콩쿠르로 인정할 만큼 대표적인 음악의 경연장에서 우리 한국인이, 그것도 우리 말일성도가 국제적으로 자랑할만한 음악의 스타 탄생을 이루었다.

바리톤 최현수 형제, 이 젊은 말일성도가 지난해 6월 13일부터 7월 5일까지 펼쳐진 제9회 대회에서 1등, 해방이후 가장 무게있는 음악상을 조국에 안겨준 것이다. 사실 이 대회에서 그가 차지한 우승의 의미는 각별한 데가 있다. 지금까지 한국인에게만 참가조차 허용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성악부문에서는 소련인이 아니고는 1등을 할 수 없다고 할 정도로 소련이 독무대를 이뤄왔기 때문이다.

최현수 형제가 이러한 성과를 거두기까지 그가 걸어온 행적을 보면

“천재란 고난을 받아들이는 초월적인 능력을 의미한다”는 카알라일의 명언을 생각해 한다.

이태리 오페라나 작곡의 대가 루시니는 “성악은 첫째도 소리, 둘째도 소리, 셋째도 소리”라고 성악에 있어서 소리의 중요성을 새삼 강조하였다. 바로 이 소리를 최현수 형제는 선천적으로 타고났지만, 타고난 좋은 소리라고 해서 그것이 곧 음악의 아름다운 소리가 되는것은 아니다. 아름다운 소리를 내기 위해서는 그에 따르는 여러가지 조건을 구비해야 하는데 단순히 발성법에 따라 소리를 낸다면 아무리 완벽하게 소리를 낸다고 해도 그 소리는 단지 기계적인 울림일 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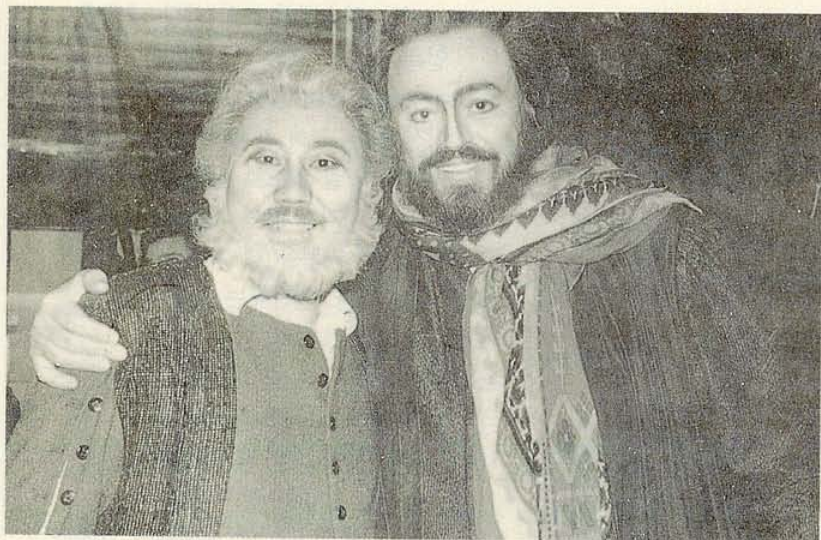
인간의 감각과 감정이 깃든 소리, 몸과 마음이 요구하는 아름다움이 깃든 소리가 바로 음악의 아름다운 소리인 것이다. 최현수 형제는 이러한 본능적인 공부의 어려움에 직면하여 한때 좌절도 했지만 무서운 집념과 지칠줄 모르는 인내로 극복하였다. 이화여대 작곡과 출신의

같은 음악도인 양정신 자매는 남편인 그를 가리켜 “이렇게 노력하는 사람을 지금까지 본 적이 없다. 정말 악보를 찢어버리고 싶을 정도로 집착해서 몰입한다”

또한 연세대 시절 그를 지도했던 원로 성악가 황병덕 교수도 “최현수는 천재는 아니다. 오히려 강렬한 색채를 요구하다 자기의 귀를 자른 고흐나 청각장애를 비판하여 하일리겐슈타트의 유서를 쓴 베토벤처럼 광기의 귀재라 하는 것이 옳은 표현일 것이다”라고 말한다.

서구 음악을 공부하기 위하여는 또한 그 전통과 새로운 흐름을 알아야 하는 까닭에 1984년 졸업과 동시에 이태리 밀라노로 갔다. 밀라노에는 이태리 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대표할 수 있는 스칼라좌가 있는데 그는 이 스칼라 가극장의 오페라 연구원 과정을 마친 후, 베르디 국립음악원과 오지몬 아카데미를 졸업하였다. 그동안 피에르 미란다 휘라로, 카를로 베르곤찌, 지아니 라이몬디, 루치아노 파바로티, 줄리에타 시모나토 등 유명한 교수들에게서 지도 받게 되어 유학간지 2년만에 칼리아리 국제 콩쿠르, 마리오 델 모나코 국제 콩쿠르, 코젠짜 오페라 콩쿠르 등에서 모두 대상을 받았고 이태리에서 가장 권위있는 부젯도 베르디 콩쿠르에서까지 대상을 받았다. 이 때 이미 한국의 명성을 널리 떨친 것이다.

그동안에 공부한 레퍼터리를 보면 독일, 프랑스, 스페인, 이태리, 러시아의 음악, 종교음악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고 또 오페라 전곡을 즉석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베르디를 중심으로 30여편이 된다고



명태너 파마로티와 함께한 최현수 형제(좌측)

하니 그의 초인적인 노력을 가히 짐작할 수 있겠다. 인간의 한계를 넘는 노력이라 아니할 수 없다. “저는 무대에 나서기 전에 꼭 기도를 하는데 그것은 제가 준비한 만큼만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서 것입니다. 저는 결코 요행을 바라지 않습니다.” 최현수 형제의 이 말에서 그가 무대에 한번 서기 위해서 얼마나 파나는 노력을 기울이는가를 가히 짐작할 수 있겠다.

성악부문에서는 동구권의 막강한 성악진영이, 특히 바리톤 분야는 독점하다시피 해 왔었고, 아시아계 외국인인 입상한 예조차 없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콩쿠르에 참가한다는 것은 대단한 각오와 자신에 대한 도전의 용기가 없이는 결코 생각할 수 없는 것이다.

콩쿠르를 치르는 동안 다른나라 참여자들은 국가나 기업 문화단체로부터 많은 후원을 받았다고 한다. 그러나 최현수 형제는 고독하게 자기자신과 싸워야 했다. 출전 리허설 관제로 호텔식사

시간에 늦어 식사도 제대로 못하고 라면으로 끼니를 해결해 가며 말이다. 5녀 1남의 형제 중 막내로 태어나 ‘고학’이라는 악조건 속에서 강인한 의지로 공부해온 실력이 주효했으리라.

우리나라 사람에게는 그동안 소련과의 관계로 보아 말할 것도 없거니와 어느 수어진 적이 없는 값진 일등을 했으니 우리 한국의 이름을 얼마나 빛내 주었으며, 다음의 말 또한 말일성도로서 얼마나 자부심을 갖게 하는 것인가? “하나님 아버지보다 더 큰 지원이 어디 있습니까?”

최현수 형제는 멜랑콜리한 부드러운 피아니시모에서 예리한 금속성과 풍부한 강한 음의 양극단을 자유롭게 구사하고 안정된 호흡조절로 음악의 폭이 광범위하여 3옥타브를 자유로이 발생하니 어떠한 노래도 부담없이 할 수가 있다. 그의 음악성은 지성과 이성으로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고 감각과 감정으로 끌어내는 것이다. 그러나 독일 리트를 할때는 지적 논리를

근거로 하는 독일적 거품을 충분히 취급하는 전천후 성악가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모든점을 돌이켜볼 때 최현수 형제가 차이코프스키 콩쿠르에서 일등을 했다는 것은 어찌보면 당연했던 것이라고도 할 수 있겠다. 또한 그의 신조인 ‘노력한 만큼 얻을 수 있다’는 사고가 독학으로 18년이라는 세월을 공부에 열중하게 했으며, “자기 편견을 없애고 더 좋은 날이 오리라고 생각해 왔습니다”라는 말에서 그의 강한 신앙을 엿보이기도 했다.

지난 6월 27일에 일시 귀국해 10월 21일 출국하기까지 4개월 정도를 체류하면서 서울, 부산, 대구, 광주, 경주 등 여러 도시에서의 독창회와 광복절 음악회, 한민족음악회 및 오페라 등에 출연했으며 레코드를 제작하는 바쁜 일정을 보냈다. 특히 예술의 전당 콘서트 홀에서 열린 독창회에서 독일, 러시아, 프랑스, 한국, 이탈리아 등 5개국의 가곡들을 레퍼터리로 한 ‘부드러우면서 서정이 가득찬 목소리’로 지금까지 우리나라 성악가들에게서 느끼지 못했던 음질과 곡해석을 선사하여 국내 팬들로부터 아낌없는 찬사와 갈채를 받았다.

현재 뉴욕 한인지부 주일학교에서 찬송가를 가르치며 지휘자로 봉사하고 있는 그는 “음악을 통해서 선교사업을 하고 싶습니다. 전과 매체를 통해서 제가 갈 수 없는 곳에 있는 가난하고 불우한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습니다. 이것이 제가 어릴적부터 꿈꾸던 음악을 하게 된 동기입니다.”라고 말하며 “예술적인 경지를 과시하는 것이 아니라



세종문화회관 대강당에서 공연된 오페라
'리콜레토'에서 리콜레토로 분한 최현수 형제

청중들과 대화하고 공감하기 위해서 저는 무대에 올라갑니다. 예술가들은 인생의 꽃입니다. 꽃이 향기를 발하고, 다른이들이 꽃을 보고 즐거워 하듯 모든 것이 생활의 윤택함과 풍요로움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예술을 위한 예술이 아닙니다."라며 청중과 밀착된 대화자로서의 자신을 피력했다. 특히 교회 청소년들에게 "진정한 자유인이 되어야 합니다. 자기의 존재를 절실하게 깨달아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하며, 꿈을 잃어버리지 말고 노력해서 차근차근 이루어 나가야 합니다."라고 노력하는 삶을 권유했다. 끝으로 그는 계속해서 공부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봉사하고 청중과 함께 호흡하는 말일성도로서 생활할 것이라는 소망을 밝혔다. *

편집자 주 : 이 기사는 오페라 '리콜레토'가 공연되기 전 '성도의 벗' 편집부에서 최현수 형제와 인터뷰한 내용이다.

교회 생활에서 얻은 기쁨



이승현 자매(면목 와드)

저는 이 교회에서 얻은 기쁨이 참으로 크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 기쁨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세 살 때부터 부모님을 따라 교회에 다니기 시작하였습니다. 부모님들은 교회를 늦게 아시게 되셨지만 저는 그분들 덕에 교회를 일찍 알게 되었고, 교회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교회 생활에 익숙해져 있었기 때문에 교회 생활에서 기쁨을 잘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부모님들께서는 많은 기쁨을 느끼셨습니다.

저와 오빠가 교회에 가지 않는다고 하면 엄마께서는 교회에서 얻은 기쁨과 축복에 대해 말해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얼른 교회에 갈 준비를 합니다.

저는 익숙해진 교회 생활 때문에 얻은 기쁨은 그리 크지 않지만, 부모님과 같이 늦게 우리 교회를 아신 분은 교회 생활에서 얻은 기쁨이 크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제가 교회에 다니면서 기쁨을 세 가지나 얻게 되었습니다. 첫번째는 제가 교회 안에서 바르게 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교회안에서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나쁜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요즈음 제 또래 아이들은 어른들의 흉내를 잘 내는데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교회에서 그것이 나쁜 일이라는 것을 배웠고, 우리는 그러면 안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짓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초등학교 어린이들 역시 그러지 않습니다. 두번째는 제가 좋은 친구들을 사귄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생활하면서 교회에 다니는 착한 친구를 사귄 수 있다는 것이 참으로 기쁩니다. 같은 또래의 친구가 아니더라도 바르고 참된 아이들을 만날 수 있고, 그 아이들과 함께 생활하는 것이 기쁩니다. 세번째는 저와 저희 가족이 건강하다는 것입니다. 건강하지 못하다면 어떤 일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교회 생활에서 얻은 기쁨입니다. 저는 이 교회가 참되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우리를 보호하심을 믿고 있습니다. *



왜 이제야 저를...

오윤근 형제(반월 지부)

작년만해도 지금과 같이 우리 가족이 모두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회원이 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제 자신의 생활이 교회 회원이 되기에는 전혀 합당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매주 일요일마다 약속이 있고 사업한다는 이유로 집대 또는 여러 사람과 접촉해야 하는 특수성 때문에 술, 담배를 많이 하고 남보다도 앞장서서 권하고 즐기는 상태였습니다. 술, 담배가 없이는 인생이 무의미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대해 약간 알고 있는 저로서는 교회 회원이 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형님들께서 교회에 20년 이상 다니시고 계셨기 때문에 때때로 가족들이 모일 때면 저희 가족이 교회 회원이 되는 것이 소원이라고 늘상 권유를 받아왔던 터라 가능하면 교회에 나가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작년 12월, 미국 유타주에 갈 기회가 생겼습니다. 우리 부부는 유타주 프로보에 있는 브리감 영 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게 되는 사촌 형님 댁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공항에 마중 나오신 형님 가족과 맨처음 간 곳이 솔트레이크 시의 교회 본부였습니다. 크리스마스 시즌이라 추리가 아름답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사진으로만 보던

파이프올젠, 성전, 비둘기 동상, 많은 교회 회원들의 밝은 표정, 초기에 말일성도들이 상상하기 힘든 고생 끝에 유타주에 정착하게 된, 당시의 여러가지 전시물들,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동상과 천정의 우주만물 그림을 구경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몰론을 믿는 줄 안다”고 하신 사촌 형님의 말씀을 들으며 제 마음속에 잔재해 있던 의구심을 완전히 제거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계속해서 말씀해 주신 영원한 가족 인봉, 죽은 자를 위한 대리 의식 등에 대해서도 좀더 실감있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4월 현재 동 스테이크 도봉 와드 감독으로 봉사하고 계신 둘째 형님께서 서울 지역 대회 초대장을 보내주셨습니다. 제가 지역 대회에 참석해서 보고 느낀 것은 대단히 큰 행사였는데도 호화스럽지 않고 검소한 분위기라는 것과, 히클리 부대관장님을 비롯한 역원들의 복장이 검소하고 수수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말씀하시는 내용의 꾸밈없음과 자연스럽게 진행되는 대회 운영 등, 이 모든 것들이 저를 놀라게 했습니다.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를 진정으로 보고 느낀 날이었습니다.

지역 대회가 있기 며칠 전 아내가 다니고 있는 수영장 앞에서 선교사님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선교사님들이 저희 집을 방문해 주셔서 많은 대화를 했습니다. 미국에 갔을 때 느낀 것과 지역 대회 때 느낀 이야기 등 자연스러운 대화를 많이 했습니다.

제가 교회에 나가야겠다고

마음먹기 시작했을 때 선교사님들을 만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도 제 자신의 생활은 술, 담배를 계속할 때였습니다. 주변 정리가 안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만 먼저 교회 보낼까 하는 생각도 했습니다. 결코 잊지 못할 로버츠 장로님과 라우스 장로님께 감사드립니다. 적극적이고 성의있는 전화 방문으로 인해 차츰 제 자신이 더욱 열성적으로 약속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토론을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몰론경, 교리와 성약, 값진 진주 등에 관하여 알게 되었고 그동안 저의 잘못된 생활을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도저히 끊을 수 없다고 생각했던 술, 담배, 커피를 아무런 어려움 없이 끊었습니다. 주변에서 저를 괴롭히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보살피 주신 것이라 생각합니다. 침례 받은 날 간증 시간에 왜 그렇게 많은 눈물이 나는지.....

하나님께 계속 기도했습니다. “왜 이제야 저를 거두어 주셨습니까...” 요즈음 직장에서 틈틈이 몰론경을 읽고 있으며 집에서는 취침 전에 복음원리 책을 보면서 신앙을 두텁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빨리 깨우쳐서 아직도 저와 같이 배회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품안으로 인도하고 싶습니다.

저희 가족을 인도해 주신 로버츠 장로님, 라우스 장로님, 그리고 형님들, 반월 지부 형제 자매님들께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증드립니다. 아멘. *

솔트레이크 시티 한인 지부 지부장단 개편



새로이 개편된 지부장단, 좌로부터 임승진, 이재욱, 김승범 형제

현재 80여명이 참석하는 솔트레이크 시티 한인 지부에서 6년 동안 지부장으로 봉사하던 김우일 형제가 지난 9월 29일 해임되므로써 지부장단이 개편되었다.

새로운 지부장으로 이재욱 형제, 지부장단 제1보좌에 임승진 형제, 제2보좌에 김승범 형제, 지부 서기에 전태훈 형제, 보조 서기에 김재동 형제가 각각 부름받았다. 특별히 솔트레이크로 여행하거나

이주하는 회원들의 연락을 비란다.
한인 지부 전화 :
(801)562-8012
지부장 이재욱 형제 :
(801)944-9158

선교사 훈련원 제132기

(1991. 9. 16~1991. 9. 27)

서울 선교부

이은란 자매 (충정 와드)

서울 서 선교부

장기영 장로 (성남 중앙)

박경실 자매 (화양 와드)

이경은 자매 (진주 와드)

이양숙 자매 (울산 지부)

전연남 자매 (신당 와드)

대전 선교부

이정화 자매 (개봉 와드)

부산 선교부

곽진희 장로 (성남 중앙)

홍경자 자매 (신길 와드)



뒷줄 좌로부터 : 장기영 장로, 전연남 자매, 홍경자 자매, 이정화 자매, 이경은 자매, 곽진희 장로
앞줄 좌로부터 : 박경실 자매, 이은란 자매, 이양숙 자매 (성전 의식을 마치고)